

La mia Italia

Eemyun Kang Solo Exhibition

Curated by Jiyeon Lee, 

August 11 - October 1, 2022

gallery **simon**

La Mia Italia 나의 이탈리아

이지운, 큐레이터

런던에서의 13년간의 유학과 작가의 삶의 마치고, 지난 7년간의 이탈리아에서의 새로운 삶과 작가 생활을 시작한 작가의 신작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7년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강임운의 작업은 매우 새로웠다. 흘러가는 시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일 듯한, 공기의 밀도가 느껴지게 하는 그런 뿌연 기법의 회화들이다. 아마도 회화나 미술사를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 스푸마토(Sfumato) 기법을 언급하며 이탈리아의 영향이 보인다고 말할 것 같다. 작품들은 어떤 특정 주제가 없어 보이듯이, 작가의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신화, 추상과 구상 사이의 세계를 캔버스 공간을 누비며 다양한 형태를 유려하고 풍성하게 그려내고 있다.

작가는 개념 미술에 대한 단단한 훈련을 런던 슬레이드 학부 과정을 통해 공부한 뒤, 2006년에 250년 전통의 영국 왕립미술학교 석사과정으로 진학, 2009년 영국 왕립미술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에게 수여하는 골드 메달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수상하였다. 강임운 작가의 졸업 전시의 작품은 매우 강렬했다. 단군신화의 곰과 마늘이 주제가 된 회화에서부터, 마치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이야기 처럼 다양한 소서사와 대서사가 서로 이어져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표현주의적 대형 캔버스를 척척 그려내었다. 동양화 훈련이 되어 있는 붓 터치도, 많은 비평가들에게 큰 호평을 받으며 졸업과 동시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평소에 책 읽기를 좋아하던 작가는 자신의 상상력과 자유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작은 모티프라 할 수 있는 주제인 버섯(Fungi)을 자연에서 발견한다. 이 버섯에서 시작된 ‘편갈랜드(Fungal Land)’라는 상상 속의 나라는 약 10여 년간 작가의 작품 모티프로 머물게 되었다. ‘버섯’은 동양과 서양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자라나는 식물이며, 그 형태와 색상 또한 다양하다. 특히 작가는 영양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을 것 같으면서 한편으로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버섯의 이중적이면서도 모호한 성격에서 삶과 죽음의 양상을 고찰했다.

그녀의 이탈리아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서로가 두세 시간 정도의 거리로만 떨어져 있지만, 사실 문화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곳이다. 특별히, 문학과 신화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작가에게는 어떤 면에 있어서, 이탈리아로의 이주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다. 회화를 시작한 나라이니 여러 가지 조건들은 어려운 만큼이나 도전적 실험을 하기에 매우 흥미로운 곳이었으며, 심지어 회화의 다른 재료로 대개 벽화의 재료로 쓰이는 템페라 등의 좋은 안료들도 쉬이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문맥적 과정을 작업의 중요한 주제로 삼은 것은 ‘변신 (Metamorphosis)’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이다. 작가는 사람에서 나무로 변하는 다프네 등 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이 주제를 작가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며, 작가의 초기작에서 이러한 신화적 모티프는 직접적으로 인용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변신하는 극적인 순간 사이사이 존재하는 무수한 시간의 결을 한 화면에 담아낸다. 그리고 색이라는 무형의 것이 가진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 주로 동양화의 필치가 가득한 강렬하면서도 표현주의적 터치가 묻어났던 초기작과 달리, 근래의 작품에서 작가는 ‘색’ 그 자체를 사색한다. 서예적 기교를 펼칠 수 있는 날랜 붓 보다는 몽뚝한 붓을 집어 자신만의 재해석으로 소용돌이치는 에너지를 풀어낸다.

그림을 통해 자유로움을 외쳤던 강임운에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그림이 되려 하나의 족쇄처럼 작용한 적도 있었다. 영국에서 이탈리아로 이주한 지 얼마 지 않아 갑작스레 닥쳤던 개인적인 시련은 작가로서, 여자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수많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던 강임운에게 있어 고난의 시기였다. 작가로서 무궁무진한 세상을 그려오던 그녀에게 대형 작업들은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그녀를 억압하는 짐이 되었다. 여기서 강임운은 또 다른 도약을 하게 된다. 작가는 큰 작업을 조각조각 잘라내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콜라주 시리즈를 시도한다. 기존 작품을 자르는 행위를 통해 새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작가가 기존 것들을 바꾸어 가며, 새로운 회화를 시도한 것은 새로운 캔버스를 찾는 노력이었다. 영국에 거주하며 작업할 당시에는 주로 스코틀랜드 산 린넨(마) 천이나 인도에서 생산한 코튼(면) 천을 사용하여 대형 사이즈 위주의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로 이주한 뒤엔 가장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천으로는 옷을 만들기 위해 제조된 옷감이나 이미 공장에서 기계로 짜여 밀 칠이 된 캔버스 천이 고작이었다. 이러한 천들은 작가가 원하는 그림의 맛을 내는데 충분치 않았다. 원하는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치며 그녀의 작품에 걸맞은 천을 찾던 중 볼로냐 근교의 작은 골동품 가게에서 접어 둥글게 말려진 대마 천을 찾아낸다. 거칠고 균일하지 못한 표면에 구김마저 있는 이 천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겼던 전쟁,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인 1940년대에 여성들이 집에서 혼수용으로 짠 천이었다. 이미 오래된 천 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천보다 단단한 베이스를 만들어 주는 이 천의 최대 폭은 80cm 내외로, 당시 집에서 기구를 이용해 짤 수 있었던 천의 너비가 그 정도였을 것임을 가늠해볼 수 있다. 작가는 바로 이 천을 세척하고, 다리고, 풀을 먹여 그림을 그렸다. 이미 긴 시간 동안 접혀 있던 천은 오랫동안 물에 담가 놓았다 말리고 다림질을 하여도 그 구김이 지워지지 않았다. 작가가 붓질을 하기 전 하나의 송고로운 의식처럼 거행하는 이 모든 과정에 적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보름 이상 소요된다. 강임운은 큰 그림을 위해서는 천을 이어 사용하고 그 이음새 또한 가리지 않고 살렸으며, 구김 또한 작품의 일부로 담아내었다. 이렇게 작가의 작품은 이미 세월의 흐름에 따른 시간성과 또 그 시대의 이야기와 염원 그리고 희망을 고스란히 품어내며 다시금 태어난다.

시간과 세월, 공기, 마음과 같이 존재하지만 형태가 없는 이러한 무형의 것들은 작가가 그리는 색의 공명 속 그 모습을 드러낸다.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늘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강임운 작품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하다. 둥글거나 네모진 그림, 기존 작업을 활용한 콜라주 시리즈 등 다양한 시도를 거치며 늘 변신의 여지를 가지고 살아 숨 쉬고 있다.

단테의 신곡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 인생이란 여정의 한가운데서, 저는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숲 속은 제 삶의 지름길이 숨겨진 장소입니다.’

- 단테, 신곡 지옥편

35세의 단테가 그의 <신곡> 첫 장에 쓴 첫 구절이다. 그는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어두운 숲’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아이네이스>의 대저자 베르길리우스 스승을 모시고 겸손하게 그 여정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 희망적이고 멋진 글귀는, 어두운 숲속에는 삶의 지름길이 숨겨진 장소라는 것이다.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단테의 신곡에 대해 이야기 했다. 아마도 본 전시도 강임운 작가에게는, 단테에게의 신곡 이상의 중요한, 의미 있는 작가로서의 여정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La Mia Italia

Jiyoon Lee, Curator

After 13 years in London as a student and artist, we present here new works produced by Eemyun Kang during the last seven years in Italy.

These works feel fresh and new. In the misty, blurry lines and strokes, it is as if one can see the energy flowing between streams of time and captured experience. Her new work feels as if it is in dynamic tension between the conscious and the subconscious; between reality and myth; abstract and figurative. They suggest both the nature and process of morphology in a rich and profound way. In terms of medium, for those familiar with art history and painting techniques, one might see an Italian influence, specifically the Sfumato technique which is attributed to Leonardo Da Vinci.

After studying at the London Slade School of Art, Kang entered the Royal Academy of Arts MA course in 2006 with its 250-year history. She was the first Korean student who went on to receive the Gold Medal in 2009 which is awarded to the cum laude graduate. The works that were presented at the graduation exhibition were powerful and received critical acclaim and attention. Notably, one of her works - which depicted a Korean creation myth in which a bear transforms into the first woman after a diet of garlic - was a profound expression of the themes that Kang would go on to explore in her career - connection, transformation, metamorphosis, and new kinds of narrative expressed in large-scale paintings. At the time, she painted with the clear and powerful strokes in the well-trained traditions of Eastern calligraphy.

Soon afterwards, she sought a subject matter which would free her from the conscious-subconscious dichotomy and landed on the “Fungal Land”. To her, fungi was ubiquitous, growing, and present in all countries - infinitely varied in both shape and colour. Fungi is also simultaneously highly nutritious as well as being extremely poisonous, thus providing a vehicle for both life and death. Fungi remained to be a major motif in her work for the next 10 years.

However, her new life in Italy brought new challenges. Although close in distance from London, they were worlds apart culturally. Her initial period in Italy as a new immigrant, new mother, and artist proved to be a challenging time. Her large-scale canvases, which in the past were a vast space for creative freedom, became an oppressive burden. This burden provided new creative impetus for her, leading into collage work formed from her previous paintings cut into small pieces. It was only in destroying her old works that she was able to bring new life to them.

On the other hand, for an artist who had a keen interest in literature and mythology, this move to Italy was a blessing. As a nation with a deep tradition in painting, it was the ideal place for experimentation as she had easier access to various traditional paint mediums such as egg tempera. This change of environment as well as the access to new artistic resources allowed her to delve deeper into the exploration of metamorphosis, which has always been the central theme of her career. In her recreation of the ‘transformation of Daphne into a tree’, she uses not only the mythological motif, but also captures what can only be described as ‘time-between-times’ in the multiple stages of transformation. In contrast to her earlier works, which were strongly influenced by Eastern calligraphy, she now

leans heavily on colour itself, using thick brushes with hefty strokes instead of sharp calligraphic lines. This has the effect of capturing the powerful transformative energy.

Alongside this conceptual shift, one can also see a clear shift in her artistic medium. One of the key aspects of her work is that she uses old canvas cloths stitched together. When Kang was in the UK, she normally used linen cloth produced in Scotland or cotton cloth from India for her large-scale paintings. However, when she moved to Italy, only the undercoated cloths manufactured for making clothes were readily available. However, this kind of cloth did not provide a sturdy enough base on which she could paint to her satisfaction. After much experimentation and exploration, she found a roll of hemp cloth in an antique shop near Bologna. Even though it was more than 70 years old, the cloth provided a sturdy base for her canvas, although limited by its narrow width due to being made in a mill machine at home. She then washed, ironed, and starched this cloth and painted on it. The creases on the cloth did not fully go away, and instead became an integral part of her work. Thus, these old home-made cloths became her medium of choice. The preparation process could take two weeks, and for larger works she stitched them together. These stitches are not hidden but presented as part of her work, becoming a part of the work - embedded, re-imagined, re-storied and reborn in a new artistic narrative.

Time, air, heart, and soul - these are transient, and do not have form, but they take shape in the colours and space within Kang’s work. Her striving for artistic freedom, her refusal to be bound by present conventions, fill her work with excitement and expectation of the new and unknown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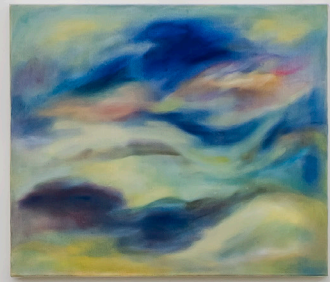
Dante’s Inferno begins thus.

Nel mezzo del cammin di nostra vita mi ritrovai per una selva oscura, che la diritta via era smarrita.

Midway upon the journey of our life I found myself within a forest dark, for the straightforward pathway had been lost

Dante Alighieri, The Divine Comedy - Inferno, Canto 1

Dante wrote the first verse when he was first 35 years old, expressing his then-spiritual state as ‘forest dark’. There he begins his long journey with Virgil. In my many conversations with the artist about Dante’s journey of redemption, this verse came up repeatedly, about how true journey in life begins when the straightforward, easy path is lost. It may be that this exhibition, to the artist, will be a meaningful, major step in her journey in the forest dark.



Nuova Blu,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61 x 76cm, 2022

Piccolo vento,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61 x 71cm, 2022

Onda,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61 x 71cm,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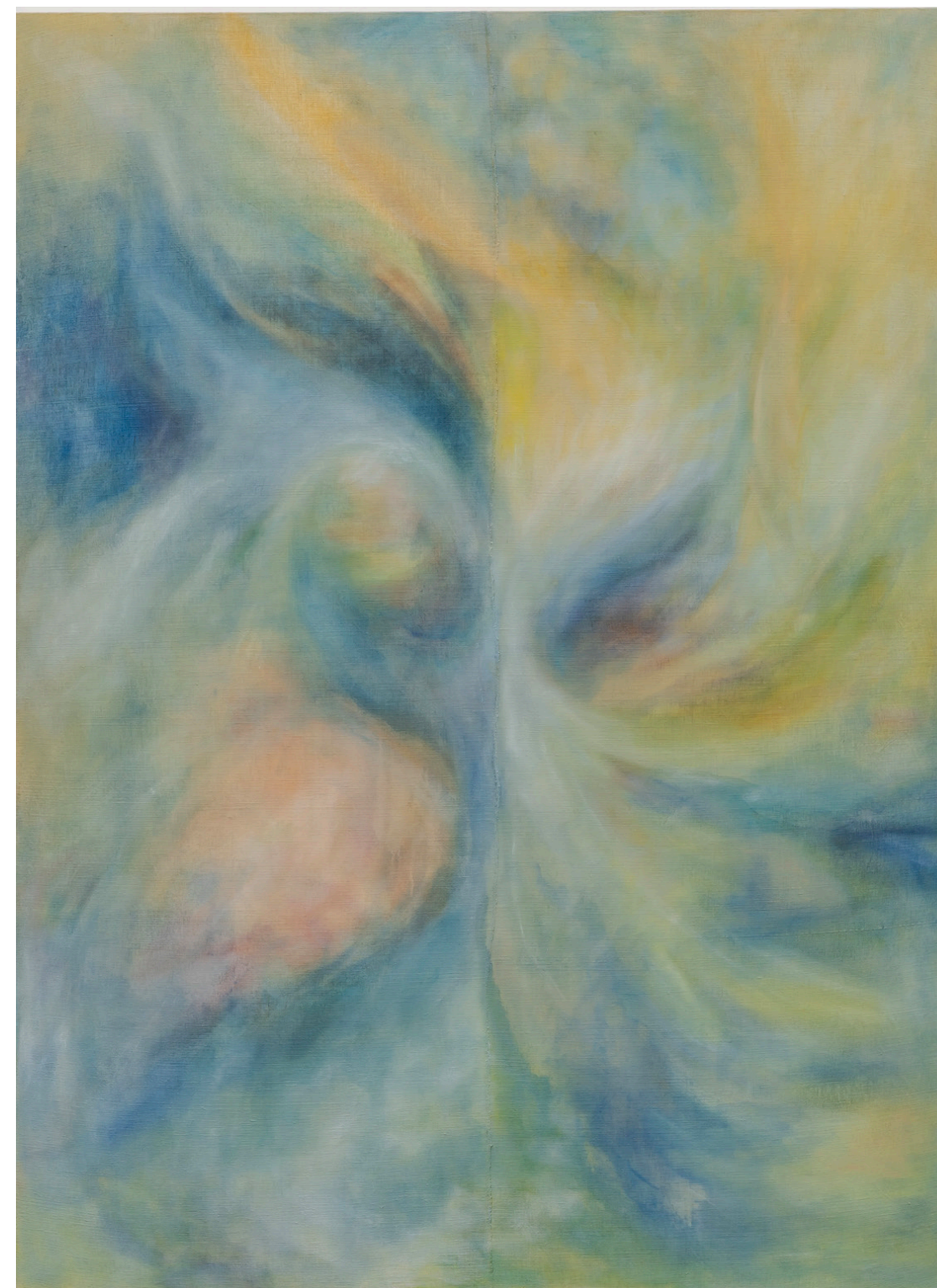
Ultimo tempore,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150 x 180cm, 2022



Installation view of *La mia Italia*, Gallery Simon,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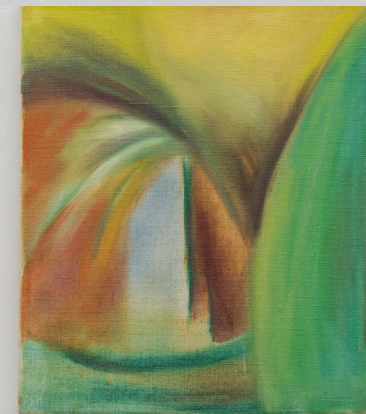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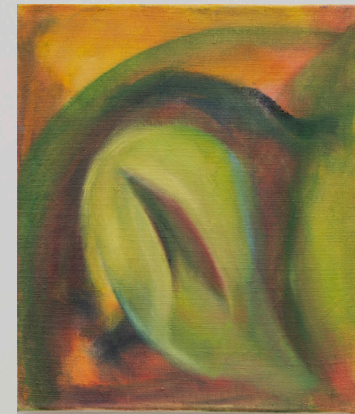
Ibi ignis in corde,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190 X 130cm, 2021



Vento,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190 x 140cm, 2022



Botany,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190 x 130cm, 2022



Almighty Shade,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71 x 51cm, 2020

Noctis Aquis,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70 x 50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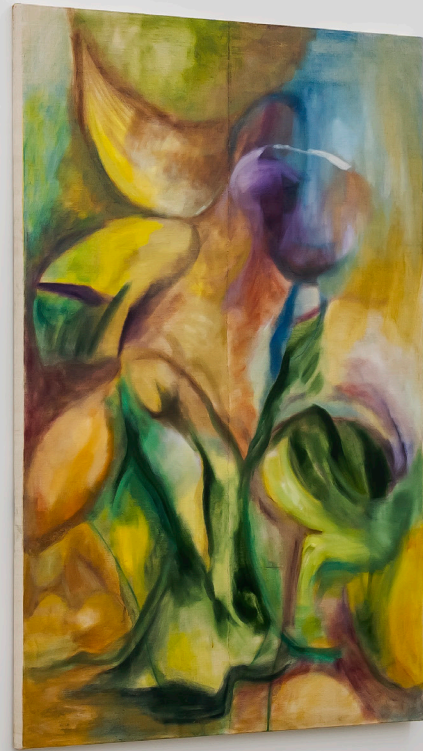
Germoglio,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36 x 31cm, 2022

Porta,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36 x 31cm, 2021

Canto,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36 x 31cm, 2022



Vocatio,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61 x 71cm, 2021



Kaya,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180 x 140cm, 2020
Escol,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190 x 140cm, 2020
Change-4, Oil, pigment and pastel on Linen, 200 x 190cm, 2020

Off the sky blue root, Oil on Linen, 140 x 100cm, 2014





Installation view of *La mia Italia*, Gallery Simon, 2022



Risus, Pigment, acrylic resin on canvas, 120 x 90cm, 2017



Dare Corda II, Pigment, acrylic resin on canvas, 102 x 72cm, 2017



Dare Corda, Pigment, acrylic resin on canvas, 102 x 72cm, 2017



Leaves I, Pigment, oil, acrylic resin and collages on canvas, 120 x 90cm, 2017



Leaves IV, Oil, pigment, acrylic resin and collages on canvas, 102 x 72cm, 2017-2022
small leaves, Oil, pigment, acrylic resin and collages on canvas, 30 x 40cm, 2017-2022
Leaves II, Oil, pigment, acrylic resin and collages on canvas, 120 x 90cm, 2017-2022
Spring, Oil, pigment, acrylic resin and collages on canvas, 86 x 56cm, 2017-2022



Dare Corda II, Pigment, acrylic resin on canvas, 102 x 72cm, 2017
Mamma mia ii, Oil on canvas, 150 x 180cm, 2016
Seno, Pigment, acrylic resin on canvas, 25 x 30cm, 2016



Installation view of *La mia Italia*, Gallery Simon, 2022



S,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50 x 50cm,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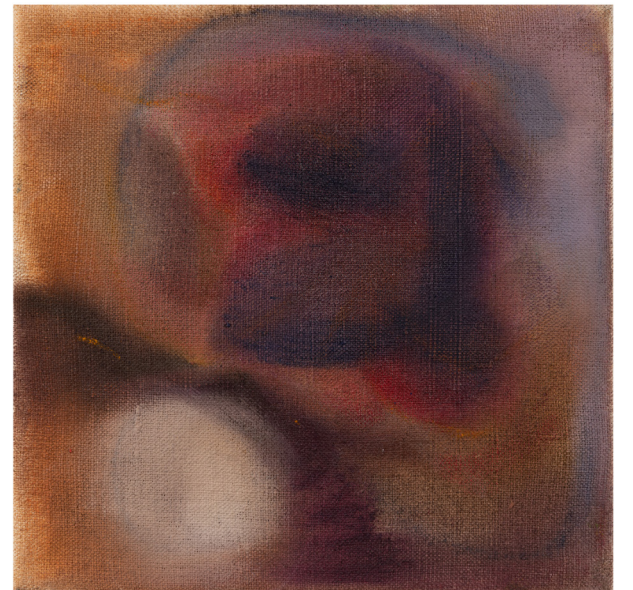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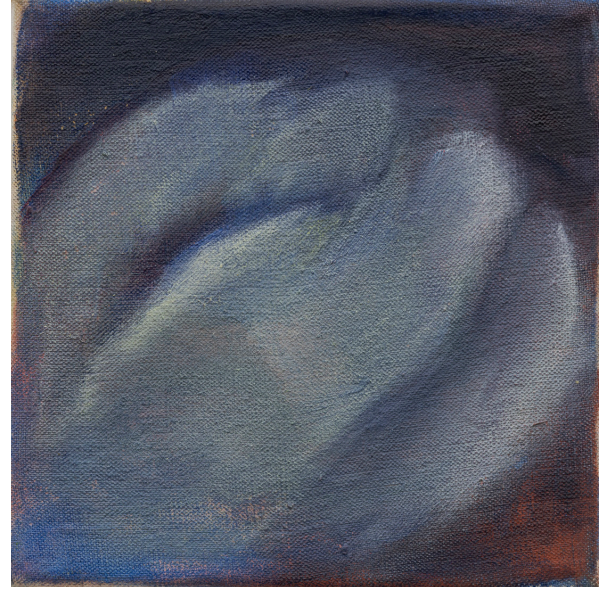
Ibi,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50 x 50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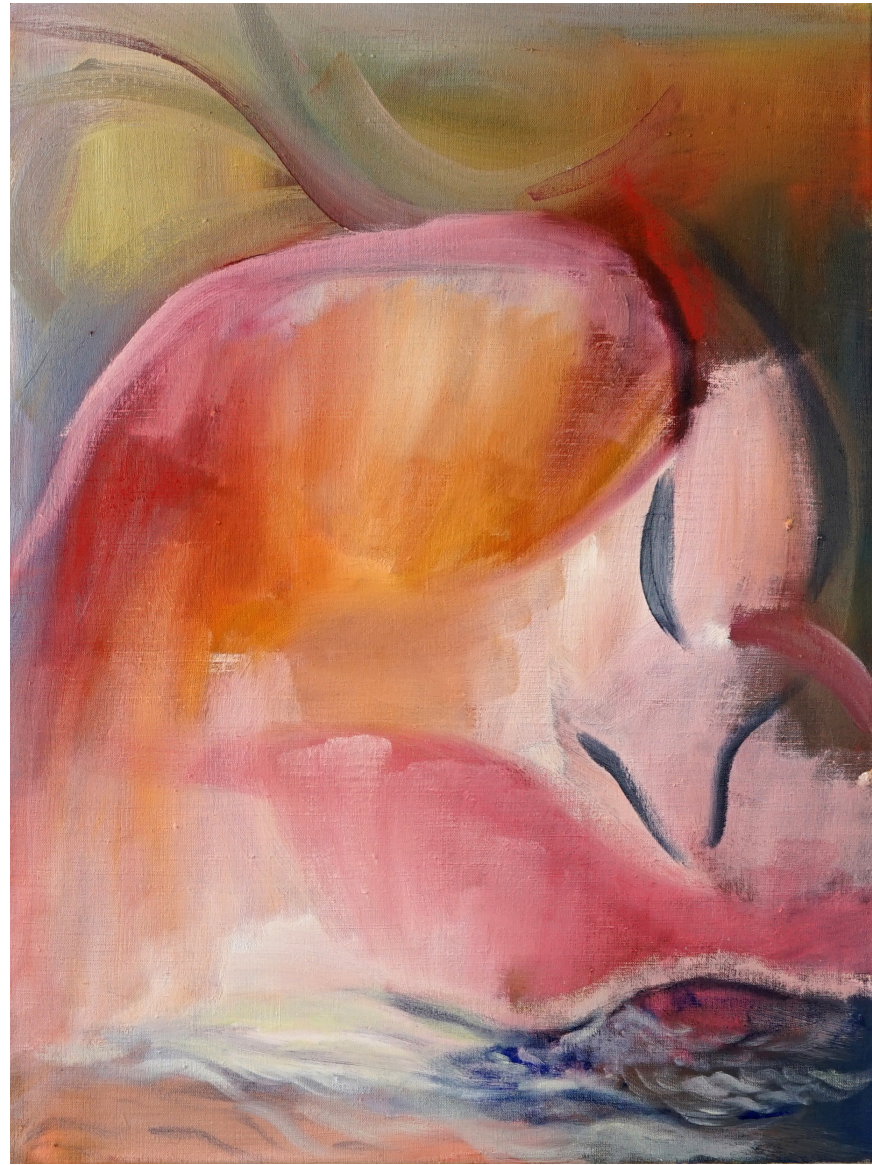
Il giardino dei pensieri,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179 x 190cm, 2022



Filastrocca,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100 x 139cm, 2020
Sensum,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65 x 55cm, 2021



Brook,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20 x 20cm, 2020
Hold,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20 x 20cm, 2022
Lay,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20 x 20cm, 2021
Brood,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20 x 20cm, 2020



Dream, Oil,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80 x 60cm, 2019



Angel, Pigment, acrylic resin on canvas, 40 x 30cm, 2017

Eemyun Kang (1981-)

live and work in Milan, Italy

Education

- 2012 Graduated from Professional Doctorate in Fine Art, University of East London, UK
- 2009 Graduated from Postgraduate Programme, The Royal Academy Schools, London, UK
- 2006 Graduated from BA Fine Art, The Slade School Of Fine Art, UCL, London, UK

Solo Exhibitions

- 2019 This Way Is Made By Walking, Trish Clark Gallery, Auckland, New Zealand
- 2019 Luna e Corda, Consolato Generale Della Repubblica di Corea, Milan, Italy
- 2014 Project Space: Eemyun Kang, Timothy Taylor Gallery, London, UK
- 2013 Fungalland And The Stranded Mother Whale, Tina Kim Gallery, New York, US
- 2012 Fungalland And The Stranded Mother Whale, Trondheim Kunstmuseum, Norway
- 2010 Dozing River, Tina Kim Gallery, New York, USA

Group Exhibitions

- 2021 Per Fumum / Through the Smoke, Museum of Archaeology, Artri, Italy
- 2020 Chang-e 4, Eemyun Kang /Alessandro Roma, Casa Testori, Novate Milanese, Italy
- 2019 Future 4 x 3, Trish Clark Gallery, Auckland, New Zealand
- 2018 Saluta I Tuoi Amici Verde, Studio Porpora, Milan, Italy
- 2015 Sleepers In Venice, Pallazzo Storico, Venice, Italy
- 2014 RE:VISION, Trish Clark Gallery, Auckland, NZ
- 2012 Eemyun Kang / Kyung Jeon, Kukje Gallery, Seoul, Korea
Art On Your Wall, Artclub 1563, Seoul, Korea
The Sounds Of The Muse, Art Sonje Center, Seoul, Korea
Map The Korea 4482, Barge House, South Bank, London, UK
As Small As A World And Large As Alone, Gallery Hyundai, Seoul, Korea
Muse London, Korean Cultural Centre, London, UK
- 2011 Done Paint Done, The Drawers Gallery, London, UK
Karmic Abstraction, Bridgette Mayer Gallery, Philadelphia, USA
Advent Of Abstraction, Art Space Loo, Seoul, Korea
- 2010 The Mountain Where Whales Once Lived, Union, London, UK
Bibliotheque: A Library Of Folding And Unfolding, @ KT&G, Seoul, Korea
Present From Past, Korean Cultural Centre, London, UK
Appropriate Modernism, Centrifugal Projects, Brussels, Belgium
The Imaginary Archive-The Gaze Of 120 展, Gallery Sangsangmadang, Seoul, Korea
GIVEITANAME, Vegas Gallery, London, UK
- 2009 Cold Cell, Union At The Old Police Station, London, UK
U•S•B, Hangaram Art Museum, Seoul Art Centre, Korea
Code Of Being, Gallery WITHSPACE, Beijing, China
Crossfields: Young Korean Artists In London, Korean Cultural Centre, London, UK
Summer Exhibition, Royal Academy Of Art, London, UK
Traveling Light, Venice Biennale 2009, London, UK; Venice, Italy

- Eemyun Kang & Ben Pritchard, Cafe Gallery At Royal Academy Of Art, London, UK
- Mindscape Of The 21st Century, Andrew James Art, Shanghai, China
- The M.A.& Other Postgraduate Art Show, Atkinson Gallery, Somerset, UK
- 2008 4482, Korean Contemporary, OXO, Barge House, London, UK
The 38th Parallel, G-Spot Showroom, London, UK
Consume Create, Henley Exhibition Centre, Henly-On- Thames, UK
Lock On, Splitter, Reinickendorfer Str.97, Berlin, Germany
Premiums 2008, The Royal Academy Of Arts, London, UK
Good Morning, Mr. Nam Jun PAIK, Korean Cultural Centre, London, UK
- 2007 What Can A Desert Island Do?, Seventeen Gallery, London UK
Influx, Nolia's Gallery, London, UK
- 2006 Landscapades: The War On Terra?, Undermilkwood Gallery, London, UK
Gussing Exhibition, Gussing, Finsbury Square, London, UK
Painting Music, Sweet ECA, Edinburgh College Of Art, Edinburgh, UK
- 2004 Art@Work, Aylesbury House, London, UK
Anywhere Out Of The World, Platform Saab Showroom, London, UK
Artskool Paris London Project, Galerie Gauche (Ecole National Superieure Des Beaux-Art), Paris, France
- 2003 Collaborate Drawings, Pearson Gallery (UCL), London, UK
Hibernation, UCL Main Quadrangle, London, UK

Awards

- 2009 Gold Medal, Royal Academy Of Arts, London, UK
Dunoyer De Segonzac Award, Royal Academy Of Arts, London, UK
- 2008 Sir Frank And Lady Short Award, Royal Academy Of Arts, London, UK
- 2006-9 Celia Walker Foundation Award, Royal Academy Schools, London, UK
- 2005 Project Award, Slade School Of Art, London, UK
- 2004 Icarus Bursary, Slade School Of Art, London, UK

Selected Collections

- Hana Bank, Seoul, Korea
- Trondheim Kunst Museum, Norway
- Mizuho International Plc London, UK
- The Korean Embassy In London, UK
- The Rolling Stones - Ronnie Wood, UK

강임윤 (1981~)

학력

- 2012 미술 박사 (DFA), 동 런던 대학 예술과 디지털 산업, UEL, 런던, 영국
- 2009 미술 석사 (MA), 영국 왕립 미술원, RA, 런던, 영국
- 2006 미술 학사 (BA), 슬레이드 미술 학교, UCL, 런던, 영국

개인전

- 2019 THIS WAY IS MADE BY WALKING, 트리시 클락 갤러리, 오클랜드, 뉴질랜드
LUNA E CORDA, 주 밀라노 대한민국 총영사관, 밀라노, 이탈리아
- 2014 프로젝트 공간: 강임윤, 티모시 테일러 갤러리, 런던, 영국
- 2013 FUNGALLAND AND THE STRANDED MOTHER WHALE, 티나김 갤러리, 뉴욕, 미국
- 2012 FUNGALLAND AND THE STRANDED MOTHER WHALE, 트론헤임 미술관, 노르웨이
- 2010 DOZING RIVER, TINA KIM 갤러리, 뉴욕, 미국

그룹전

- 2021 PER FUMUM / THROUGH THE SMOKE, 고고학 박물관, 아트리, 이탈리아
- 2020 CHANG-E 4 , 강임윤 / 알레산드로 로마 이인전, 카사 테스트리 미술관, 밀라노, 이탈리아
- 2019 FUTURE 4 X 3, 트리시 클락 갤러리, 오클랜드, 뉴질랜드
- 2018 SALUTA I TUOI AMICI VERDE, 오픈 스튜디오, 밀라노, 이탈리아
- 2015 SLEEPERS IN VENICE, 팔라쥬 스토리코, 베네치아, 이탈리아
- 2014 RE:VISION, 트리시 클락 갤러리, 오클랜드, 뉴질랜드
- 2012 강임윤 / 전경 이인전, 국제 갤러리, 서울, 한국
ART ON YOUR WALL, 아트 클럽 1563, 서울, 한국
THE SOUNDS OF THE MUSE,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MAP THE KOREA 4482, 바지 하우스, 사우스뱅크, 런던, 영국
AS SMALL AS A WORLD AND LARGE AS ALONE, 갤러리 현대, 서울, 한국
MUSE LONDON, 한국문화원, 런던, 영국
- 2011 DONE PAINT DONE, THE DRAWERS 갤러리, 런던, 영국
KARMIC ABSTRACTION, BRIDGETTE MAYER, 필라델피아, 미국
추상의 도래, 아트 스페이스 루, 서울, 한국
- 2010 THE MOUNTAIN WHERE WHALES ONCE LIVED, UNION 갤러리, 런던, 영국
도서실: 접고 펴는 도서관, @ KT & G, 서울, 한국
과거로 부터의 선물, 한국문화원, 런던, 영국
APPROPRIATE MODERNISM, CENTRIFUGAL 프로젝트, 브뤼셀, 벨기에
120 展, 상상자료실, 갤러리 상상마당, 서울, 한국
GIVEITANAME, VEGAS 갤러리, 런던, 영국
- 2009 Cold Cell, Union At The old police station 프로젝트, 런던, 영국
U•S•B, 한가람미술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국
Code of Being, 갤러리 WITH SPACE, 베이징 갤러리, 중국
Crossfields: 런던의 젊은 한국인 예술가들, 한국화원, 런던, 영국
하계전시회, 왕립미술원, 런던, 영국
Traveling Light, 베니스 비엔날레 2009, 런던, 영국; 베니스 이탈리아

- 강임윤 & 벤 프리처드, 왕립미술원의 카페 갤러리, 런던, 영국
Mindscape Of The 21st Century, 앤드류 제임스 아트, 상하이, 중국
The M.A.& Other Postgraduate Art Show, Atkinson 갤러리, 서머셋, 영국
- 2008 4482, 한국 동시대미술, OXO, Barge House, 런던, 영국
The 38th Parallel, G- Spot 소룸 , 런던, 영국
Consume Create, 헨리 전시 센터, 헨리 온 템스, 영국
Lock On, Splitter, Reinickendorfer Str.97, 베를린, 독일
Premiums 2008, 왕립 예술원, 런던, 영국
좋은 아침입니다, 백남준 씨, 한국문화원, 런던, 영국
- 2007 What Can A Desert Island Do?, Seventeen 갤러리, 런던, 영국
인플릭스, 놀리아스 갤러리, 런던, 영국
- 2006 Landscapades: The War On Terra?, Undermilkwood 갤러리, 런던, 영국
Gussing Exhibition, 거싱, 핀즈버리 스퀘어, 런던, 영국
Painting Music, Sweet ECA, 에든버러 예술대학, 에든버러, 영국
- 2004 Art@Work, 에일즈베리 하우스, 런던, 영국
Anywhere Out Of The World, Platform Saab Showloom, 런던, 영국
Artskool Paris London Project, Galerie Gauche (Ecole National Superieure Des Beaux-Art), 파리, 프랑스
- 2003 Collaborate Drawings, Pearson Gallery (UCL), 런던, 영국
Hibernation, UCL Main Quadrangle, 런던, 영국

주요 수상경력

- 2009 졸업 금 메달, 왕립 예술원, 런던, 영국
- 2008 프랭크 앤 레이디 쇼트 상, 왕립 예술 아카데미, 런던, 영국
- 2006-9 셀리아 워커 재단상, 로얄 아카데미, 런던, 영국
- 2005 프로젝트 상, 슬레이드 예술대학, 런던, 영국
- 2004 이카루스 버사리, 슬레이드 예술대학, 런던, 영국

작품 소장

- 하나은행, 서울, 한국
- 트론헤임 쿤스트 박물관, 노르웨이
- 미즈호 인터내셔널 plc 런던, 영국
- 주영 대한민국 대사관저, 런던, 영국
- 롤링 스톤즈 (로니 우드) 개인 소장, 영국

Catalogue © 2022 Eemyun Kang and Gallery Simon

La mia Italia

Eemyun Kang

August 11 - October 1, 2022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 recording, or any other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All artworks © Eemyun Kang

Director \ Young Bin Kim
Curator \ Junghyun Ha, Chihyun Kim

Curated by Jiyeon Lee
Assistant curator \ Yunseon Son

Catalogue Designed by Junghyun Ha, Chihyun Kim

Publisher \ Young Bin Kim
First Published 11 August, 2022
Printed in Korea